

회복의 땅에서 보내는 선교 편지(박태호, 김경희 선교사)

아름답도다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롬 10:15)

동역자님 새해에도 가정과 하시는 일 위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함께 하시길 소망합니다. 저희는 하나님의 은혜와 동역자님의 기도로 잘 지내고 있습니다. 선교지 가운데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역사와 함께 선교 소식을 나눕니다.

인도 선교지 소식

12월 한 달 동안 사역지 가운데 7개 지역에서 성탄절 전도 행사를 하였습니다. 암팔라 생명 교회는 약 570명이 모여서 죄인을 위해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속죄 제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고 경배해야 할 유일한 분임을 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러 가정 교회 성도들과 많은 힌두 신자가 함께 참석하여 복음을 듣는 생명 축제의 날이었습니다. 이번 전도 집회 때 들었던 복음이 모두의 마음에 새겨져서 우상숭배의 죄를 버리고 구원자이신 예수님께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암팔라 생명 교회 성탄절 성극 >



<암팔라 생명 교회 성탄절 행사>

예상보다 많은 인원이 참석하여 도시락을 준비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지만, 성도들이 기쁜 마음으로 섬기고 나누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번 성탄절에는 예배 및 행사 진행, 식사 및 간식 담당, 새 가족 등록, 봉사팀 등으로 나누어 조직적으로 일하는 모습을 보니 조금씩 자라 가고 있음에 흐뭇했습니다. 최근 가정 교회가 위치한 아쿨세(Akulse)와 보노라이뿔(Bonolapur) 등 여러 지역에서 그리스도인에 대한 핍박이 심해지고 있습니다. 핍박 가운데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부활 신앙으로 타협하지 않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인도를 넘어 아시아로

저희는 당분간 인도에 들어갈 수 없는 상황이라 작년 12월 1일에 필리핀 실랑(Silang)에 집을 렌트하였습니다. 집을 구하고 이사하기까지 김효진, 정경희 선교사님께 많은 사랑의 빛을 쬔습니다. 저희를 필리핀에 옮겨 심으신 하나님께서 좋은 현지인 동역자를 만나서, 아버지의 뜻이 이곳에서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저희 부부가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겸손한 종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곳에서 아시아 지역순회 사역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필리핀에서의 사역 계획은 정규 신학을 하지 못한 현지 목회자 재교육과 훈련을 통하여 성령 충만한 목회자로 세우고자 합니다. 그리고 필리핀교회가 선교 받는 교회에서 선교하는 교회로 변화하는데 작은 올림

이 되고자 합니다. 필리핀은 영어권으로 아시아, 중동 지역에 영어 교사, 해외 가사 도우미로 많이 나갑니다. 이들이 선교 훈련을 받고 해외 취업을 나가면, 하나님이 심으신 그곳에서 자비량 선교를 할 수 있는 준비된 자원들입니다.



< AOICC 주일 예배 >



<AFCM 카부코 교회 성탄절 예배>

태국 선교 집회

작년 11월 21~22일에 태국 치앙마이 중앙 교회에서 AM(Asian Mission) 105 선교 집회가 있었습니다. AM 105 주관으로 태국인을 대상으로는 처음으로 열린 선교 집회였습니다. 태국 현지 목회자와 교회 리더들이 참석하여 선교적 도전과 기도 운동을 일으키는 좋은 시간이 되었습니다. 많은 인원이 참석하지는 않았지만 작은 불꽃이 큰불을 일으키듯이 성령의 불이 확산되어 태국에서도 강력한 선교 운동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태국 선교 집회 기도 시간>



<AM 105 선교사님과 태국 교회 성도들>

인도네시아 방문

저희는 12월 22일~1월 1일까지 인도네시아를 방문하였습니다. 인도네시아는 20년 전 단기 선교를 다녀온 후 두 번째 방문이었습니다. 이번 방문은 인도네시아의 무슬림 선교 상황을 파악하고 선교의 접촉점을 찾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신학교의 상황을 직접 보고 신학생들의 식비를 전달하는 것이었습니다. 인도네시아에서 23년 동안 사역하시고 계시는 한 선교사님을 우연히 선교관에서 만나 교제하다가 선교사님이 운영하시는 신학교의 열악한 상황을 듣게 되었습니다. 다음날 김경희 선교사가 어떤 교회 사모님과 대화 중 그 신학교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얼마 후 그 사모님께서 성령의 감동을 따라 신학생들 식비를 후원해 주셨습니다. 저희는 반둥(Bandung)의 선교사님 댁에 머물면서 GMS 선교사님을 만나 인도네시아의 선교 상황

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이후 그곳에서 차로 약 2시간 정도 떨어진 짜란장(Ciranjang)에 있는 신학교에서 1박을 하면서 젊은 학장님과 교제하면서 인도네시아 신학교의 어려운 상황에 대해 들었습니다. 주일은 기독교인들이 모여 사는 동네의 현지 교회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의 형식과 의식은 있는데 성령의 감동이 없는 냉랭한 분위기에 일부 청소년은 예배 시작부터 마칠 때까지 핸드폰만 만지고 있어서 안타까웠습니다. 최근에 기독교 지역의 땅을 무슬림들이 사들이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마음이 아팠어요. 인도네시아 교회 가운데 회개의 영이 부어져서 기도의 불이 임하고 성령으로 깨어나게 하소서 이런 고백으로 기도하였습니다.

그다음 날 기차를 타고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여 약 20년 동안 무슬림 사역을 하시는 선교사님 가정에 머물면서 그분이 접촉하고 있는 무슬림 가정을 함께 방문하였습니다. 차로 왕복 8시간이나 소요되는 해발 3000M 고지에 있는 먼 여정이었지만, 한 영혼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기쁘게 사역하시는 선교사님의 모습을 보면서 잔잔한 감동을 받았습니다. 선교사님이 오랫동안 장학금을 전달하며 접촉하던 모녀에게 드디어 예수님을 전하는 복된 시간이었습니다. 이번 방문은 무슬림 선교를 어떻게 전략적으로 해야 하는지를 생각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 인도네시아 반둥에서 >



<복음을 전하시는 선생님>

사역현장에서 다시 한번 고백 되는 것은, 인간의 어떤 자원이나 능력으로 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찬양합니다. 마지막까지 겸손한 마음으로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종의 가정이 되게 하소서. 우리의 공급자 우리의 도움, 흔들리지 않는 반석이신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 제목

1. 가족의 영,혼,육의 강건함을 주시고 깨어 있게 하소서
2.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게 하소서
3. 인도 교회가 영적, 양적으로 성장하고 자립하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4. 인도 교회와 성도들이 핍박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소서
5. 필리핀에서 믿음과 성령이 충만하고 신실한 현지 동역자를 만나게 하소서
6. AM 105 사역을 통하여 효과적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게 하소서

회복의 땅에서 박태호, 김경희 선교사(찬영, 찬희) 드림